삼성 '가전 춘투' LG

냉장고 신모델·美 소비자가전쇼 전시 TV 본격 출시

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 감지센서 경쟁…中企도 각축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봄을 맞아 전략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전 춘투(春鬪)'에 돌입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TV 시장 1~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공개한 전략 TV 제품들을 이달 본격적인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SUHD TV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2세대 퀀텀닷 기술을 채용한 SUHD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략 제품인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78형·65형 SUHD TV 최신 라인업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11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서 북미 주요 거래선들을 초청한 전미 세일즈 미팅을 열고 2016년형 SUHD TV 출시를 시작했다.

LG전자도 CES에서 선보인 2016년형 '올레드 TV'를 이달 안에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출시행사를 갖는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시장에서 신형 올레드 TV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정예 판매 전문가를 육성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분야도 판매 경쟁이 확전하는 분위기다.

냉장고는 이달 초 삼성전자가 상냉동 하냉장 타입의 2016년형 'TMF 냉장고' 신모델을 출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2016년형 TMF 냉장고는 '지펠 T9000'과 '지펠 푸드쇼케이스' 등 프리미엄 냉장고에 주로 적용해온 삼성전자만의 독립냉각 시스템을 일반 냉장고에 확대 적용한 제품이다.

LG전자는 지난 달 출시행사를 가졌던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는 883ℓ 용량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에 얼음정수기를 결합한 게 특징이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는 공기청정기도 코웨이와 다이슨 등 중소기업까지 가세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름이 1㎛(100만 분의 1m) 이하인 극초미세먼지를 감지하는 PM1.0센서를 탑재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신제품 3종으로 시장공략에 나섰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원형 디자인의 공기청정기 등 3종이다.

삼성전자도 청정능력과 초미세먼지 감지 기능을 개선한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지난 1월 말 내놓고 일찌감치 시장 선점에 나섰다.

코웨이도 차별화된 4단계 항 바이러스 헤파필터 시스템을 탑재한 'AP-1016P(33㎡)'를 내놓고 삼성과 LG 에 도전하고 있다.

다이슨은 공기청정기 겸용 선풍기 '퓨어쿨'을 출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봄 성수기를 맞아 주요 가전업체들이 올해 전략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제품 경쟁에 가세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6.81 (+7.05)	↑ 금리 (국고채 3년) 1.51% (+0.02)
↓ 코스닥 691.51 (-0.91)	↓ 환율 (USD) 1153.60원 (-9.90)

용두동 최고층·최첨단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 751세대 공급…46층 주상복합

용두동지역주택조합이 광주시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양산지구 쌍용예가의 견본주택이 지난 1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뛰어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설 양산지구 쌍용예가는 지하 3층~지상 46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용면적 59·73·84㎡ 751세대로 구성된다. <조감도>

옥상에 스카이 라운지 전망대를 갖추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곳곳에 갖춘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은 높였다. 세대 내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전기·수도·가스 등은 원격 검침함으로써 검침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빗물을 단지 조경용수로 사용하거나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한 장치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

4베이(Bay)평면 설계로 채광, 통풍, 개방감이 탁월하며 가변형 벽체를 사용해 입주민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대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양산지구 쌍용예가가 위치한 용두동은 빛고을대로, 임방울대로, 하서로가 엇갈리는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북광주·동림·광산·산월IC 등 광역교통망 또한 준수하다.

또한 도보로 2분 거리에 광주 도시철도2호선 용두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편의성과 함께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용두초, 본촌초, 용두중, 지산중이 인접하고 일곡지구 학군 접근성도 우수해 교육 걱정도 덜 수 있다. 문의 062-573-161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경품

10만원 이상 태블릿PC·영화티켓 등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새봄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광주은행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봄맞이 체크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체크카드(학생증 카드 포함)를 소지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광주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이벤트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PC(갤럭시 뷰) 1명, 고급텀블러(100명), 보조배터리(100명), 영화티켓(100명), 커피음료교환권(10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 (1588-33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글로벌 ICT산업 흐름 한눈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일 CES 컨퍼런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2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CES 2016 리뷰 &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제조업분야에 ICT융합을 통한 위기돌파가 지역의 핵심으로 떠오는 가운데 지난 1월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리뷰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ICT산업의 흐름을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광주 지역 주요 기업지원기관들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CES 2016 리뷰 다큐 상영, CES 2016 참가기업 스피치, MCN 및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최신 이슈를 다룬 스페셜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컨퍼런스 발표 강사로 3D 프린터 부문에 포머스팜 윤정록 대표가, 웨어러블스마트워치 부문에 이놈들연구소의 윤태현 대표, 크라우드펀딩 부문의 'Kickstarter 100만불 펀딩 성공 신화'를 쓴 놀라디자인의 장성은 대표, MCN 분야의 대표주자 트레저헌터의 박진우 본부장이 나서 각 분야의 정보와 사업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정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전세계 비즈니스 흐름과 최신 ICT 정보를 공유하는 CES 2016 리뷰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 지역 내 기업들이 ICT, SW융합을 통해 현 위기를 벗어나고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보, 호남 수출기업 올 1조3314억 보증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는 올해 호남지역 수출기업에 3805억원, 5년이내 창업기업에 9509억원 등 총 1조3314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신보 호남영업본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수출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증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수출기업 부문에서 1505억원, 창업기업 부문에서 120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가운데 창조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지식재산(IP)보증에 271억원을, 융합보증에는 294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과학기술 제품을 생산한 기업, 기술융합형 제품 생산 기업도 대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